

[K리그]최용수 감독 "마침표 잘 찍어...가족 분위기가 원동력"

등록 2012.11.21 23:18:17 | 수정 2016.12.28 01:35:30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FC 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서울 최용수 감독이 경기장으로 나오고 있다.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 프로축구 FC서울이 2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오르면서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서울은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41라운드에서 정조국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서울은 이날 승리로 27승9무5패로 승점 90 고지에 오르면서 2위 전북(22승12무7패·승점 78)과의 승점 차를 12로 벌렸다. 3경기씩 남겨둔 서울이 3연패를 하고 전북이 3연승을 해도 역전이 불가능하다.

스플릿시스템이 처음 적용된 시즌에 깔끔하게 거둔 값진 우승이다.

지난해 감독대행을 맡았던 최 감독은 감독 부임 첫 해에 서울을 정상에 올리면서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초짜 감독이 크게 사고를 친 셈이다.

최 감독은 한 팀에서 선수-코치-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진기록도 달성했다. 2000년 서울의 전신인 안양에서 선수로, 2010년에 서울에서 코치로 우승했다.

최 감독은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마침표를 잘 찍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좋은 선수들과 무한 애정을 보내준 구단, 프런트, 코칭-지원스태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나보다는 우리, 개인보다는 팀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믿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됐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우승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오는 25일 전북현대전을 포함해 남은 3경기에서 전력을 쏟지 않아도 된다. 모두 저도 서울의 우승은 변하지 않는다.

3경기 운영에 대해서 최 감독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기회가 많지 않았던)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솔직한 나의 심정이다. 그 뒤에는 가족들이 있다"며 음지에서 묵묵히 노력한 선수들을 배려했다.

서울은 25일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공식적인 우승 세러머니를 펼칠 예정이다.

◇최용수 감독과의 일문일답

-우승 소감은.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표를 잘 찍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시즌 3경기를 남겨두고 홈에서 팬들에게 우승 세러머니 할 수 있게 됐다. 선수들이 부족한 나를 잘 믿고 따라와 줬고 정말 자랑스럽다.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친구들과 싸우고 화해하고 하면서 이끌어 왔는데 잘 됐다. 선수-코치-감독으로 한 팀에서 좋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준 구단주에게 감사하고 특별한 관심 속에 무한 애정을 보내준 프런트와 코칭-지원스태프에게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 번 하고 싶다."

-우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선수들이다. (나는)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뒤에서 조연이 되고 싶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고 싶었다. 서로 믿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서로를 이해해줬다. 가족적인 좋은 분위기가 우승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FC 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서울이 1-0으로 승리,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있다. 최용수 감독이 선수들에게 헝가래를 받고 있다.
bjko@newsis.com

-선수로 우승했을 때와 차이는.

"그 때는 내가 잘 해서 우승을 한 줄 알았다. 그런데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보니까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우리 선수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선수 시절에는 우승을 하지 못해도 내년 시즌이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 서울의 감독이라는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는 많은 선수들과 공유를 해야 했고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감독 데뷔 시즌에 정상에 올랐는데.

"사실 감독 첫 해에 우승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썩 좋을 것 같진 않다. 순리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우리 선수들이 잘해줘서 뜻하지 않게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됐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 내년부터는 우리 팀이 표적이 될 것이고 거센 도전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슬기롭게 내가 아닌 우리로 대비해야 하느냐 등 숙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 물러설 생각은 없고 끈끈한 내부 결속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우승까지 오는 길에서 가장 큰 고비는.

"외부에서는 서울이 순항 중이니까 잘 몰랐을 것이다. 초반에 대안의 문제도 있었고 5~7라운드까지 승점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됐기에 선수들에게 집요하게 승점을 요구했다. 대안과의 일이 있을 후에 내부적으로 결속할 수 있었다. 선수들이 대안을 걱정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고 끈끈한 것을 활용하면 초반에 치고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겠다 싶었다. 대안과는 시즌 내내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했다. 재미있었다."

-내년 AFC 챔피언스리그 나가게 됐는데.

"올해 울산이 우승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쉽진 않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 보겠다. K리그가 아닌 아시아에서도 정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도전해 보고 싶은 게 내 생각이다."

-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나는 성격이 다혈질이다. 지기 싫어하고 거친 표현도 많이 했다. 항상 내가 아닌 우리, 개인이 아닌 팀이라는 단어를 썼다. 선수들 모두가 공수를 같이 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축구를 할 수 있어야 했는데 하나가 된 것 같다. 팀 스포츠에서 개인이 팀을 이길 수 없듯이. 내가 서울에서 선수-코치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선수들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해해주고 도와주면서 '으쌔으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

-우승 확정 후에 가장 먼저 포용한 선수가 골키퍼 김용대였는데.

"선수들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혼자 바보가 됐다. 유일하게 눈을 마주친 선수가 김용대였다. 팀이 성적을 내기 위해 선 문지기의 역할이 크다. 전 경기 출장에, 최소실점까지 놀라운 선방으로 안정되게 했다. 수비가 안정되면서 선수들이 믿고 정상적으로 경기할 수 있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직 3경기가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오늘 K리그에서 최강자라는 것을 보여줬다. 남은 3경기 상대가 전북, 포항, 부산이다. 전북은 우승을 경쟁했고 좋은 축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 (25일 전북전인데)우리 마당에서 좋은 축구를 해야 할 것 같다. 나머지 3경기 운영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기회를 못 잡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솔직한 내 심정이다. 그 뒤에는 가족들이 있다."

ero0204@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